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호 [루체 제22970호] 주제99 (2010)년 1월 18일 (월요일)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領導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아들여나가자!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합동  
훈련을 보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  
와 공화국기가 펼펼 휘날  
리고 《위대한 김정일동지  
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  
자!》를 비롯한 천만군민  
의 수령결사옹위의 맹세를  
담은 구호들이 나붙어있는  
훈련장에는 무적필승의 전  
투적기상이 나래치고 있  
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훈련  
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  
광과 행복을 지닌 군인들  
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훈련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군인들은  
새해 정조부터 대고조의  
진두에서 우리 군대와 인  
민을 승리의 한길로 혁명  
하게 이끌어주고 계시는  
어버이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  
로 환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들이인 리용무동지,  
오국렬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  
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리영호동지와 조선로  
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  
임간부들이 동행하였다.

또한 여러 군부대들의 지휘관들, 국방  
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  
사회적 책임자들이 훈련을 참관하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과 군종, 병종사령관들을 비롯한 장령  
들이 맞이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전망대에 오르시여 훈련진행계획  
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훈련을 보시  
였다.

훈련시 작구령이 내리자 비행대들과  
함선들, 각종 지상포들의 치밀한 협동  
으로 《적집단》에 무자비한 불소나기  
가 들씌워졌으며 《적진》은 산산조각  
이 나고 불바다로 화하였다.

훈련은 적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한치의 땅이라도 감히 건드린다면 다지  
고다져온 목적의 군력으로 침략자들을  
단번에 짓뭉개버리고 사회주의 조국을  
철옹성같이 사수할 멸적의 투지에 충만  
된 인민군군인들의 단호한 결심과 무자  
비한 타격력을 잘 보여주었다.

육해공군장병들은 훈련을 통하여 무  
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 탁월한 지략



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책  
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해가시는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의 손길  
아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영웅  
적조선인민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  
였다.

참관자들은 쌓이고쌓인 분노의 분출  
인듯 천지를 진동하며 울부짖는 폭음과

포성속에 순식간에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가슴후련한 훈련을 보면서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조선  
인민군을 그 어떤 강적도 일격에 격멸  
소탕할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키워주시고  
자위적 국방공업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  
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최대  
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  
으며 필승의 신심과 탁판에 넘쳐 주체

혁명위업을 무장으로 끝까지 완성하고  
야말 불라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전법으로 무장  
한 일당백군인들의 용맹스러운 훈련모  
습을 보시고 모든 군인들이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제때에 격파분쇄하  
고 사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킬수 있  
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훌  
륭히 준비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인들은 자기들의 훈련을 친히 보아주시고  
전투력강화를 위한 귀중한 가르침심을  
주시며 자애로운 사랑의 한풀에 안아주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  
에 솟구치는 경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영원히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며 조  
국보위성전에 한몸 다 바칠 결사의 맹  
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절세의 위인들의 품속에서 혁명의 1세가 누린 값높은 삶

## 항일혁명투사 박성철 동지가 받아 암은 크나큰 믿음과 사랑

항일혁명투사들은 우리 당시 혁명가의 귀감으로 내세우고 존대하는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였다.

민족수난의 암담한 시기 나라를 찾는 싸움에 한 몸바칠 맹세를 암고 혁명의 길에 나선 그들이 항일전의 불길속에서 유능한 군사정치일꾼으로,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나고 해방후 당과 군대, 국가와 인민경제에 여려 부문의 핵심이 되

여 조국보위와 부강조국건설에 크게 공헌한 인생행로, 그것은 곧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키우고 아끼며 내세워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결한 동지적의리의 감동깊은 역사이다.

박성철동지는 절세의 위인들의 품속에서 혁명가로 한생을 값높이 빛내인 우리 혁명의 첫 세대였다.

### 혁명적정규무력건설의 일선에 세워주시며

총대 중시, 군사 중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일관하게 견지해 오신 사상과 표신이다. 혁명활동의 첫 시기 무장도로부터 조직하고 종래에 의하여 조국해방의 혁사적위업을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에 개선하신 후에도 군사문제에 선착적인 관심을 돌리시여 혁명적정규무력건설에 필요한 군사정치간부들을 키워낼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창설하시었다.

중앙보안간부학교사업을 잘하여 하루빨리 물간이 될 군사간부들을 키워내는 것은 미제의 남조선강경과 반동파들의 책동으로 하여 정세가 더없이 험해하고 복잡했던 해방직후의 환경에서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나섰다. 그런데 당시 중앙보안간부학교의 형편을 보면 군사교육문제를 놓고 이 나라식이 어떻소, 저 나라식이 어떻소 하면서 론의가 분분하였다.

우리 혁명에 필요한 군사간부들을 키워내자면 시급히 이런 현상을 바로잡아야 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를 강화하고 인민정권을 토크니 꾸려는데 준비된 간부들이 많이 요구되었지만 혁명적정규무력건설사업을 위하여 각자에 곤경하였던 여러명의 항일혁명투사를 평양으로 부르신다. 그때 박성철동지도 해산에 파견되어 사업하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1946년 8월 중순에 평양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박성철동지로 말하면 1934년 4월에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한 후 중대 청년간사사업도 하고 중대장의 직책도 맡아한 정치군사적으로 훈련한 미더운 전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만나

신 것은 주제 25 (1936)년 봄의 어느 날에 남로두군정간부회의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선전적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대에 이를고 알록강연한 국경지대로 진출하시다가 그가 속한 부대가 주둔해 있었던 문화현 우심정지에 들리시었을 때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의 전진적방침에 따라 부대편성도 새로 하였는데 수령님을 끌어들이 흠모하던 박성철동지는 수령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눈물을 머금고 페렸다. 그날 그를 타일러 들려보내시었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출부대와 떨어져 도립현에 서는 중대장으로써 싸우고 있는 박성철동지를 자주 부르시여서 조각난 회의에도 참가시켜주시고 떠나보내실 때에는 서운함을 금치 못하는 그에게 우리는 만나도 헤어져도 마음은 함께 있다고 하시며 위로해주시었다. 그리고 주제 34 (1945)년 봄에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앞당기기 위한 최후공격계획을 하달하기 위하여 국내로 나오자실 때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여러 지휘성원들과 함께 그를 결코 불러주시었으며 조국에 개선하신 후에는 인민정권사업을 바로잡고 혁명적정규무력건설의 불길에서 단련된 전사들을 부대의 지휘성원으로 파견하기

### 군인 출신을

### 외교 일군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선혁명은 주체의 거치높이 중종철철한 시련과 난관을 과감하게 헤쳐며 전진하고 승리해왔다. 그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전의 불길속에서 키우신 전사들을 언제나 굳게 믿으시고 당시의 토론과 정책을 판월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세워주시였다.

전후부구건설의 마치소리가 온 나라에

메아리처럼 메인 주제 4 (1945)년

9월 초의 어느 날이었다. 최고사령부에서

일하고 있었던 박성철동지를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심려어린 암색으로 그의 아래를 찬찬히 훑어보시다가 이윽하여 그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시며 나는 동무를 외국에 보내기로 결심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한창한 정세에 대해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일전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전사들을 부대의 지휘성원으로 파견하기

조각난 회의에도 참가시켜주시고 떠나보내실 때에는 서운함을 금치 못하는 그에게 우리는 만나도 헤어져도 마음은 함께 있다고 하시며 위로해주시었다. 그리고 주제 34 (1945)년 봄에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앞당기기 위한 최후공격계획을 하달하기 위하여 국내로 나오자실 때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여러 지휘성원들과 함께 그를 결코 불러주시었으며 조국에 개선하신 후에는 인민정권사업을 바로잡고 혁명적정규무력건설의 불길에서 단련된 전사들을 부대의 지휘성원으로 파견하기

그날 그를 키워내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군사지식을

소유한 군사간부들을 키워낼수 없다고,

학생들에 대한 군사교육은 철저하게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때 제발 군복만은 벗지 않게 해주십시오. 군복을 벗고서는 하루도 살것 같지 않합니다.

그리고 주제 34 (1945)년 9월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 단련된 동

군인들은 항일혁명투쟁에서

우리나라에 대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단련된 동

군인들은 항

#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전렬에서 달리는 대고조시대의 제일기수들

위대한 장군님의 특별감사문을 받아온 최전발전소건설자들

## 만방에 떨치라, 선군조선의 기상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또다시 회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소식은 새해 벽두부터 만 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고 있다.

새해 현지지도의 첫걸음으로 군인건설자들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께서 평화 30℃를 오르내리는 혹한속에서 건설장을 돌아보시며 그들의 투쟁을 고무려해주시고 특별감사문까지 보내주신 이야기는 온 나라 인민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한해도 안되는 기간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벌써 세번째로 쪽으신 거룩한 자작이다.

지난해 3월 물소리만이 울리던 한적한 산중에 몸소 개척자의 자작을 짓으시며 종전같으면 10년도 더 걸릴 회천발전소건설장을 단 몇해 동안에 해체길 위로 활황한 설계도를 펼쳐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로부터 불과 몇 달후 또다시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다고, 회천발전소의 군인건설자들이 아말로 새로운 천리미속도, 『회천속도』 창조자들이 라고 값높이 내세워주신 것이 어제 일같은데 우리 장군님께서 정월의 후한속에 또다시 회천 땅을 찾으실 줄 누가 꿈에나 생각했으랴.

건설장의 한복판에 서시여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거창한 인제공사장을 굽어보시며 여기와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기상, 조선의 기상을 다시 한번 뚜렷히 보았다고, 이런 혁명적 기상을 가진 군대와 인민이 있

는 한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념을 더 옥 굳게 가지게 되었다고 하시던 그 음성이 오늘도 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새겨져 있다.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회천발전소건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관찰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주어 세계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입니다.』

지금도 들려오는듯싶다. 지난해 3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주어 세계에 대한 책임을 맡아온 그 음성이.

공사에 동원된 어느 한 인민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자신께서는 그 부대의 군인들이 안면청년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혁명적 군인정신을 창조한 것을 직접 목격한 증언자라고 하시며 회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은 지난 기간 중요대상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결판의 투사들이라고, 회천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속도를 창조하여 선군조선의 기상을 다시 한번 뚜렷히 보았다고, 이런 혁명적

기상을 가진 군대와 인민이 있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한몸이 그대로 성새가 되어 물길을 돌리고 언제 기초를 쌓았으며 점기가 미쳐 들어오지 못한 조건에서도 주저없이 물길공사를 절어들고 아직은 세계수력발전건설사 새겨져 있다.

『회천발전소건설은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회천발전소건설은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회천발전소건설은

신이라고 하시며 회천발전소건설 속도를 바로 선군시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혁명적 군인정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그날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힘

체전을 들이대는 등 공사속도를 부쩍 높일수 있는 방향과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천속도』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풍

랑같이 내달려 영웅조선의 혁

신이라고 하시며 회천발전소건설을

나는 최고사령관으로서 전선시찰을 하면서 우린 병사들이 있는 회천발전소건설장을 최전선이나 같다고 하시는 자애 넘친 말씀을 받아안으며 지휘관들은 솟구치는 걱정에 눈굽을 말씀하시였다.

그날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힘

체전을 들이대는 등 공사속도를

부쩍 높일수 있는 방향과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선시찰을 하면서 기초공사와 박차를 가면서 기초공사와 콘크리트치기 성과를 확대하였다. 이들은 이동식 혼합기의 대수를 부쩍 늘이고 가배수로

상판치기 비롯한 중심구간의

콩크리트치기에서 실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선인민군 김대봉 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은 새로운 선별,

현지공장을 완비하는 한편 텁제전의 방법으로 언제 기초공사를 콘크리트치기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였다. 이 투쟁속에서 가배수로가 불과 2개월만에 형성되고 좌인과 우안 중심부의 전구간에서 기초굴착과 바닥 콩크리트치기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새로운 물체선별장을 더 건설할 목표 밀이 결사적인 투쟁을 벌리고 있다. 조선인민군 허창연 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은 언제 전설에서 자신들이 지난 일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이미 전설한 혼합장을 리용하여 강장우속에서도 각종 부재생산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우안과 좌안의 기초굴착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은 맨발 날

씨에도 아량없이 혁명적 군인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매일 굴

착파제를 넘쳐 수행하는 한편

으로 보답할 한마음으로 언제 기초굴착과 물체선별장보강, 부재생산에서 현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언제 전설지휘부의 일군들은 겨울철조건에 맞게 언제기초굴착과 물체선별장보강, 부재생

산에 총력량을 집중함으로써 날씨가 풀리자마자 언제 콩크리트치기 를 본격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우안과 좌안의 기초굴착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은 맨발 날

씨에도 아량없이 혁명적 군인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매일 굴

착파제를 넘쳐 수행하는 한편

물체선별장을 더 건설할 목표 밀이 결사적인 투쟁을 벌리고 있다. 조선인민군 허창연 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은 언제 전설에서 자신들이 지난 일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이미 전설한 혼합장을 리용하여 강장우속에서도 각종 부재생산

을 험하게 해주고 있다.

부대 안의 전체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새롭운 선별,

현지공장을 완비하는 한편 텁제전의 방법으로 언제 기초굴착

과 콩크리트치기 성과를 확대하였다.

이 투쟁속에서 가배수로가 불과 2개월만에 형성되고 좌인과 우안 중심부의 전구간에서 기초굴착과 바닥 콩크리트치기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새로운 물체선별장을 더 건설할 목표 밀이 결사적인 투쟁을 벌리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새

공법을 전격적으로 적용해주

고민해주시면서 우리 함께 힘

을 합쳐 승리의 날을 앞당기자고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향해 밤을

창조하게 하였습니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지금

새해 정초에 또다시 건설장을

찾으시고 자기들의 투쟁성과를

그토록 민족해하시며 더 높이 비약하도록 고민해주시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전투적파업을 높이 반발하고 새

공법에 따라 언제 공사작

을 펼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군인건설자들을 불러

일으켰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지금

새해 정초에 또다시 건설장을

찾으시고 자기들의 투쟁성과를

그토록 민족해하시며 더 높이 비약하도록 고민해주시고 있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새롭운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새

공법을 전격적으로 적용해주

고민해주시면서 우리 함께 힘

을 합쳐 승리의 날을 앞당기자고

말하고 있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새롭운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새

공법을 전격적으로 적용해주

고민해주시면서 우리 함께 힘

을 합쳐 승리의 날을 앞당기자고

말하고 있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새롭운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새

공법을 전격적으로 적용해주

고민해주시면서 우리 함께 힘

을 합쳐 승리의 날을 앞당기자고

말하고 있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새롭운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새

공법을 전격적으로 적용해주

고민해주시면서 우리 함께 힘

을 합쳐 승리의 날을 앞당기자고

말하고 있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새롭운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새

공법을 전격적으로 적용해주

고민해주시면서 우리 함께 힘

을 합쳐 승리의 날을 앞당기자고

말하고 있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새롭운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새

공법을 전격적으로 적용해주

고민해주시면서 우리 함께 힘

을 합쳐 승리의 날을 앞당기자고

말하고 있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새롭운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새

공법을 전격적으로 적용해주

고민해주시면서 우리 함께 힘

을 합쳐 승리의 날을 앞당기자고

말하고 있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새롭운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새

공법을 전격적으로 적용해주

고민해주시면서 우리 함께 힘

을 합쳐 승리의 날을 앞당기자고

말하고 있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새롭운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새

공법을 전격적으로 적용해주

고민해주시면서 우리 함께 힘

을 합쳐 승리의 날을 앞당기자고

말하고 있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새롭운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새

공법을 전격적으로 적용해주

고민해주시면서 우리 함께 힘

을 합쳐 승리의 날을 앞당기자고

말하고 있다

# 강성대국이 보인다

기세드높이 (↓ = 151)

작사 윤두근  
작곡 김운룡



가내 일군 무수 희생 군 많은 수수집 들을 염으 기한 진 실동 복파 확고 년부 많은에게 경북 마들에 증진 안의 혈육 동무 까지 사들 불리 맹원 짐승 희천 보내 안 수십 틈에 발 휘하였다.

세 딸모두를 인민군군관에게 시집보내고 아들은 조국보위초 소에 세운 어머니답게 지난 30여년간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군인들에게 보내준 개성시 승천동 너맹원 엄순녀 동무도 원군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는 원군미풍열 성자의 한 사람이다.

이밖에도 혁포구역 대현동 협복순, 사동구역 두루2동 리선옥, 득장구 리금선, 북창군 읍 김옥수, 옥천로동자구 김순애, 운전군 대연리 오원조, 해주시 구제동 김영실, 봉천군 송정리 로정님, 벽성군 박선옥, 황주군 장천리 김연애, 고원군 읍 장명옥, 함흥시 흥남구역 류정2동 리문숙, 청진시 라남구역 라성동 전혜월, 청진시 신암구역 신진동 윤명희, 김책시 역전동 최매순, 명천군 통암로동자구 최순옥, 혜산시 김혜숙, 전순금동무들도 위대한 장군님의 병사들을 위하여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 있다.

인민군대가 강해야 조국이 강하고 자신과 가정의 행복도, 창창한 미래도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변함없이 원군길을 걸고 또 걸는 이런 훌륭한 인민들이 있어 우리 조국의 위력을 백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새로 나온 기록영화 『인민사랑의

【평양 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서 기록영화 『인민사랑의 등산길을 따라』를 만들어 내놓았다.

영화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현명한령도에 의하여 묘향산에 등산길이 새로 생겨나고 이곳이 더욱 홀륭한 유원지로 전변된데 대하여 생동한 화폭으로 소개하고 있다.

아름다운 묘향산을 인민의 것으로 되게 하여주시려고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영화는 수록하고있다.

영화는 이선남폭포와 만폭동 등산길, 곳곳에 설치된 휴식터 등 묘향산의 새 풍경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승고한 뜻을 깊이 새기고 자연미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등산길을 닦은 청년돌격대원들을 비롯한 평안북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자료들을 편집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선군시대 창조물을 일떠세운 건설자들에게 크나큰 응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해서도 영화는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기록영화는 절세위인의 손길 아래 천하제일명산 묘향산은 사회주의조국강산과 더불어 더욱 아름다워지리라는것을 강조하고있다.

【평양 1월  
17일 발조  
선중앙통신】  
메가와띠 수  
카르노뿌뜨리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  
지도리사회 총위원회 13  
일 정춘근 이 나라 주재 우  
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  
났다.  
석상에서 총위원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새해에  
도 당과 군대, 국가의 전반  
사업을 이끄시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자신과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전체 당원들의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인사를 전하여드릴 것을 대사  
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공  
화국정부, 인민이 새해 공동사  
설을 만들고 경제 강국 건설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  
다 큰 성과를 달성하기 바란다  
고 말하였다.  
그는 6. 15 공동선언 발표  
10돐이 되는 올해에 북남판  
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며 조

선반도의 공고  
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  
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  
지를 천명한 새해 공동사설에  
긍정을 표시하면서 조선이 하  
루 빨리 통일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은 나  
라의 통일과 조선반도의 평화  
와 안정을 위한 조선당과 정  
부, 인민의 투쟁을 언제나 지  
지하며 조선로동당과의 친선협  
조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  
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  
총공세의 해로 빛내일데  
한 공동사설의 전투적호소  
접한 만경대공작기계공장  
물분공장 일군들과 로동계  
이 새해의 첫 진군길에서부  
출강의 종소리를 높이 울  
고있다.  
위대한령도자  
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전히시연되

적 아시겄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로자들은 자기 힘에 대한  
신심,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  
! 못해낼 일이 없다는 배심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  
우리의 자원으로 대고조  
진격로를 열어나가야 합  
디다.》

새해가 밝아온 이른아침, 첫  
강을 앞둔 용해직장은 불비  
다. 웅—웅— 쇠물이 끊는  
해로를 주시하는 일군들의  
굴에도, 출강준비를 서두르  
로동자들의 얼굴에도 배심  
은 웃음이 넘치였다.

《지난해 150일전투에 이  
100일전투계획을 넘쳐  
행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속  
서도 기술을 혁신하여 생산  
정들을 새롭게 꾸려놓았으니  
심이 든든합니다. 올해전투  
서 승리자의 영예를 반드시  
칠것입니다.》

용해직장 직장장이 지배인에  
하는 말이였다.

옳은 말이였다. 지난해 그들

구성시건불보수  
업소 김은희동부 집집  
온돌수리공이 되여 집집  
문을 쳐음으로 두드리던  
로부터 벌써 20여년이  
였다.  
평범한 농장원가정을 찾으시  
생활을 친아버지이십정으로  
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애로운 영상을 텔레비죤화  
을 통해 뵈옵면 그날 김은희  
무의 가슴속에는 온돌수리

# 10월을 향하여 울리는 출강종소리

## 만경대공작기계공장 주불분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

은 150일전투에 이어 100일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면서 로보수주기를 1.5배이상 늘일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헐치 않은 목표였다. 그러나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은 낮에 밤을 이어 집체적지혜를 합쳐나갔다. 끝내 방도를 찾은 그들이 로개조전투에 진입하려고 할 때였다. 직장장이 로개조전투진입을 중지시키였다.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강뿔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로개조전투를 한주일동안 질질 끌면 강뿔생산보장이 결린다.

공장에서 공작기계생산에 필요한 주물품을 생산보장하면서 화력발전소의 미분란공정에 절실히 필요한 강뿔을 스스로 맡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고난의 행군》시기부터였다. 강뿔이 미처 보장되지 않아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안타까워한다는것을 알게 된 공장일꾼들은 강뿔을 공장에서 주물하여 보장하기로 결심하였다.

—전력생산부문은 강성대국 건설에서 4대선행부문의 하나이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한 전호에 섰다는 자각을 안고 강뿔생산공정을 꾸리자!

이렇게 되여 공장에는 강뿔생산공정이 꾸려지게 되였다. 이러한 그들의 발기를 내각과 기계공업성, 금속공업성에서 적극 지지해주며 원료와 자재 보장대책을 세워주었다.

강뿔이 생산되면서 그에 대한 수요는 날을 따라 높아졌다. 평양시안의 화력발전소들에서뿐 아니라 북창과 순천지구의 화력발전소 등 어디에서나 강뿔을 요구하였다.

—모래형태에 의한 주물방법으로는 높아지는 강뿔수요를 보장할수 없다. 대담하게 금형주조방법으로 생산공정을 개조하자.

애로가 많았다. 하지만 기사장을 비롯한 기술자들은 끝내 금형주조방법에 의한 현속공정을 꾸려놓고야말았다. 강뿔생산은 종전보다 3배이상 높아졌다.

그렇게 되니 이번에는 용해직장에서 가만있지 않았다.

용해직장에서는 100일전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로보수주기를 1.5배로 늘이기 위한 대담한 전투를 벌리였던 것이다. …

이 문을 두드리며  
사람들 모두가 뜨겁게 느끼게  
하려는 소중한 마음이 자리잡  
게 되였다.  
그 날부터 수많은 세대들의  
온돌과 부엌수리, 굽뚝수리를  
하면서 그는 늘 시간가는줄 모  
르며 일하였다.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는 안해를 찾아갔  
던 남편이 구들채가 가득 잊은  
은희동무의 얼굴을 미쳐 알아

에서도 어느 한 집  
의 온돌수리를 밤  
새워 끌내고서야 집으로 향한  
이야기…  
20여년세월 주민들을 위해  
그가 바친 진심을 어떻게 다  
이야기 할수 있으랴.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이 질  
들어 방안이 훈훈하다고, 우리  
집 부엌이 정말 멋쟁이가 되었  
다고 반기며 이야기할 때면 그  
는 말없이 웃음짓는다.

**출강종소리**  
들과 로동자들

용해로개조전투는 3일동안  
에 끌났다. 용해직장 용해공  
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주물직장 주물공들이 이제  
부터 땀을 빼게 되었지.

첫 출강종소리가 울리였다.  
쇠물남비가 용해로앞에 다가  
오자 《출강!》하고 웨치는  
용해직장 직장장의 기쁨에 넘  
친 목소리가 용해장에 메아리  
쳐갔다. 잘 익은 주홍빛 쇠물  
이 붉은 화평을 뿜어올리며  
남비에 폭포처럼 쏟아져내리  
였다. 용해공들은 또다시 용  
해로에 잽싸게 원료를 장입하  
기 시작하였다.

주물 직장은 주물공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였다. 주물공들은 용해공들의 그 혁신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가슴속에는 기어이 용해직장을 따라앞서려는 승벽심이 말없이 움씰거리였다.

주물 3 작업반 반장의 발기에 의하여 주물직장에서는 지난해 100일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면서 집체적지혜를 합쳐 어렵다고 하는 내부전조방법을 전조로에 받아들임으로써 전조시간을 훨씬 축소하였고, 주물공들은 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때 첫 쇠물을 받은 주물직장의 주물공들이 신심드높이 강뿔생산에 들어갔다. 금형주조방법에 의한 련속공정으로 강뿔을 생산하는 주물직장에서는 잠간사이에 쇠물남비를 비워놓았다.

『쇠물을 빨리 보내야겠네. 그러다간 10월의 대축전장으로 우리와 함께 들어서기 어렵겠네.』

주물직장 직장장을 비롯한 주물공들이 구리빛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쇠물을 독촉하는 목소리였다.

련신이 뜨거워 올라가는 암물

씬 줄이면서도 주물품생산을  
또다시 3배이상 끌어올릴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기술혁신의 경쟁속  
에서 달리고달리며 150일  
전투계획도 100일전투계  
획도 년간계획도 넘쳐 수행  
하며 그들은 승리자의 영예  
드높이 뜻깊은 새해를 맞이  
한것이다. ...  
이윽하여 용해장에 올해의  
현이어 또다시 울리는 야무  
진 출강종소리...  
경사로운 10월의 광장으로  
떳떳하게 들어설 불타는 열의,  
강성대국건설에서 자랑찬 로력  
적성파로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갈 한마음안고 이 분광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새해의  
첫아침부터 출강의 종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자랑 많은 후방가족들

청단군 화산중학교 교직원들은 당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긍지에 넘쳐 후대 교육 사업을 잘하고 있다.

두 자식 모두를 인민군대에 입대시킨 교장 리재영동무와 교원 박현순, 리금철동무를 비롯한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총대의 귀중함을 깊이 심어주어 그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는 차제로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로 달려나갔다.

군사복무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빛내여 가고 있다는 자식들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이들 부부는 후방가족된 긍지를 가슴뿌듯이 느끼면서 말려진 일과 인민군대원호사업에 앞장설 결의를 다지운다.

## 자랑 많은 후방가족들

구성시건물보수  
사업소 김은희동무      **집집의 문을 두드리며**      에서도 어느 한 집  
가 온돌수리공이 되여 집집      사람들은 모두가 뜨겁게 느끼게  
의 문을 쳐음으로 두드리던      하려는 소중한 마음이 자리잡  
째로부터 벌써 20여년이      게 되었다.  
되였다.  
평범한 농장원 가정을 찾으시  
여 생활을 친어버이 심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텔레비죤화  
면을 통해 뵈옵던 그날 김은희  
동무의 가슴속에는 온돌수리  
새워 끌내고서야 집으로 향한  
이야기...  
20여년 세월 주민들을 위해  
그가 바친 진심을 어떻게 디  
이야기 할수 있으랴.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이 질  
들어 방안이 훈훈하다고, 우리  
집 부엌이 정말 멋쟁이가 되었  
다고 반기며 이야기할 때면 그  
는 말없이 웃음을 짓는다.





# 반사회주의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이전 쏘련의 가��공화국이 었던 어느 한 나라에서 대통령의 죄가 수도를 포함하여 나라의 곳곳에 세워져 있는 베니동상을 비롯한 소련 시기의 기념비들에 『경쟁』을 선포 하였다.

그는 나라이 서부에 있는 주요도시에서 전개된 한 종교행사에 참가하여 여러 도시들과 마을들의 교회당 앞에 베니동상이 서 있었는데 대해 차기나라 사람들의 식이 이어져졌으며 이것을 바로잡자면 오랜 시간이 걸렸이라고 했더다. 그는 심지어 지방자치체들이 쏘련시기의 기념비들을 없애지 않으면 『북리와 신의 축복』을 기대 할 수 없다고까지 되어졌다.

이 나라에서는 베니동상을 함마다 깨부시거나 폭파하고 뻥튀기를 들붓는 사태가 일어났다. 최근년간 이 나라에서는 쏘련시기의 기념비 400개가 없어졌다.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반사회주의, 반혁명적 책동이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와 윤간 사회주의원쑤들과의 심각한 정치사상적 대결입니다.』

사회주의의 위엄은 혁사무대에 출현한 때부터 제국주의와 윤간 사회주의원쑤들과의 철에 한 정치사상적 대결 속에서 전진하여 왔다. 사회주의의 위엄이 제국주의의 자들을 비롯한 한 양 반혁명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을 통하여 조건에서 제 급직원칙, 혁명적 원칙을

굳건히 고수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사회주의원쑤들과의 투쟁에서 계급적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면 혁명의 전취물을 적대 세력들에게 빼앗기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운동력 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며 진리이다.

행정이 종식된 이후 이전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일어난 비정성적인 사태들은 제국주의의 자들을 비롯한 사회주의원쑤들에게 환상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 원칙을 양보하게 되면 어떤 비참한 후과가 초래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의 강세가 되어온다.

사회주의의 강세가 되어온다. 사회주의의 힘은 힘으로 전락되었다.

제국주의는 사회주의의 최대의 적이다. 그들은 사회주의를 지구상에

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의 나라들과 사회주의의 지향하는 나라들을 주되는 공격 목표로 정하고 비렬한 모욕과 종상, 회우와 기만, 위협 공갈과 압력 등 갖은 악랄한 책동을 다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꼬마 등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발랄한 고집과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때늦은 후회이다. 사회주의는 버리기는 쉬워도 되찾기는 힘든 법이다.

사회주의의 강세가 되어온다.

사회주의의 강세가 되어온다